

## 2015년 강원 합격생 포도(가명)입니다. 부끄럽지만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1차 : 교육학 14.67 전공 59 (합 : 73.67)	1차 컷라인 67.33
2차 : 실기 25 심층면접 38.83 수업실연 18.67 지도안 9.57 (합: 92.07)	
총점: 165.74	최종 컷라인 163.34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나 최종에서 안타깝게 안되신 분들을 위하여 합격수기를 쓰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은 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자신의 공부 방법 검토를 위하여 합격수기를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점**은 올 한해 공부를 시작할 때, 그 동안 쌓아 두었던 생각들을 모두 버리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테면 ‘**암기를 해도 합격하기 힘든 시험이다. 나랑은 맞지 않은 시험이다. 대체로 운이었다. 학원에 의지하지 말자.**’ 등등의 임용을 치러오면서 감정과 섞여 형성된 사고들이 있습니다. 임용준비가 길어질수록 더욱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선입견을 배제한 채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임용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객관식 시절에 3차까지 간 경험**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안되었다고, 최종에만 몇 회 안되었다고 그 사람이 실력이 높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한 자기 자신이 최종에서 안되었다고 자신이 생각할 때 부족한 부분만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입견을 없애시고, 올 한 해 동안 계속 암기와 확인을 반복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1차 컷라인에서 전공점수가 5점 이상 차이 나는 분은 컷라인 근처로 빠른 시일 안에 실력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공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암기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컷라인에서 웃도는 분들이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은 1차 합격컷 보다 10점 높게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모의고사 때는 무조건 60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봄학기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 분들은 전공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더욱 정교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부해야겠죠.

### 그럼 이제 저의 학습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7월초까지 월화수 오전만 근무)는 학교 업무(시간강사)를 하였습니다. 임용을 오래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4년도에 저는 임용이 좌절되었고, 제 주변분들, 후배들 모두 합격되고, 저는 학교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임용시험에서는 남들보다 계속 뒤쳐진다는 생각과 좌절감이 커져서 임용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시작할 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중이 더 잘 되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 4-6월 : 일주일에 전공 6일

#### [위상 교과서 분석 강의(직강) + 위상 3-4월 심화 이론(인강) / 서술형 대비 서브노트 제작]

교과서 분석 수업은 도판 위주이기 때문에 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도판이 많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화 이론에서 다룬 기본 지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을 듣다가 심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배운 내용을 서술형의 형태로 서브노트를 만들고, 암기하였습니다. 서브노트는 모두 자필로 썼습니다. 올해는 인강 듣고, 스터디 문제 내는 것 외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강은 심화 이론과 기출분석 강의만 들었습니다.) 서브노트를 제작할 때는 들었던 강의와 진도를 맞추니 복습이 되고, 암기하고, 교과서 분석에의 컬러 도판을 관찰하고 심화 이론까지 들으니 정교화되어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자연히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계속 탐구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참, 도판도 어떤 영역에 잘 나오는 도판인지 기억하시고, 도판에서 중요한 관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판을 볼 때에는 교육자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 도판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과정에 답이 있습니다. 도판에서 작가나 기법이 무조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판에 따라 영역별 중요도가 다 다르겠지요.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서브노트 위주로 암기하고,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도판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복습 위주의 학습을 하였습니다. 심화이론 수업 중 궁금한 내용은 기본서를 다시 찾아보고, <청소년을 위한>시리즈 책을 보았습니다. 모르거나 궁금한 용어는 핸드폰으로 검색하여 그때그때 궁금증을 풀었으며, 중요한 내용은 역시 포스트일에 메모하여 심화자료에 부착하였습니다.

모의고사 때 느낀 것이지만 **이 시기에 논술 대비 강의를 들을 걸...후회**했습니다. 제가 강사 일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 강의만 들었습니다.

• 6-9월초 서술형 대비 스터디 스터디원 4명

- 주제 : 미술교육(주요 이론, 중요 학자), 동양 미술사, 미학, 서양 미술사(신고전주의-현대 미술), 조선 시대 회화사
- 파트별로 기출문제와 교과서를 분석하여 기출과 유사하게 내거나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
- 일주일에 하루 3-4시간 가량.

각자 분량을 정해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고,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동안 쓰고, 출제자에게 제출하여 바로 첨삭 채점합니다. 그리고 출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모두 컬러로 인쇄하였습니다.(중요한 부분은 색깔 달리하고, 도판도 삽입했어요.)

문제를 출제하면서 어떤 내용이 서술형으로 내기 좋은지에 대해 생각하여 출제자의 관점도 알 수 있었고, 채점하면서 다른 스터디원의 오류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오류점을 발견했을 때는 저 역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 세 명의 각기 다른 답안을 채점하면서 내용을 더욱 정교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어떤 점이 취약한지 계속 느낄 수 있었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확실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답답할 경우는 **전공 선생님께 물어보고 답을 구하였습니다.** 스터디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군요.

스터디는 빠빠하게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주 스터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범위에 대한 암기가 미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터디 스케줄에 맞추어 암기하였고, 기간은 학원 수업인 이론 파트와 단원별 문제풀이 파트가 겹쳐져 있어 스터디와 수업 모두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터디에서 낸 문제가 단원별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로 유사하게 혹은 똑같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공부 방향이 맞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스터디원이 아프거나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스터디를 빠지게 되면 문제만이라도 공유하여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첨삭도 하였습니다. 각자 개인 사정을 존중하여 융통성 있게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매주 일주일동안 공부할 수 있는 적정 양으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공부도 도움되었지만 심적으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터디가 좋았던 이유는 스터디원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궁금증에 대한 공유를 많이 하였습니다. 주어진 내용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정교화시키기 위해서는 궁금증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갖더라도 해답은 기본 이론이나 기출에서 찾아야 합니다. 궁금증을 키워 임용과 관계없는 전문서적을 찾아보거나 전문가들의 여러 이견들을 찾는 시간낭비는 안하셔야 합니다. 임용을 준비하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들은 버리시길 바랍니다.(예전 강사들 자료나 자신이 만든 오래된 자료 등)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문제는 제가 만들었던 한 회 분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노량진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하시길 꼭 권하고 싶습니다. 독서실 앞에 슈퍼, 복사집, 독서실 내부에서는 쓰레기통 등이 구비되어 있어 잡일 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날씨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주변에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서로 말은 안해도 의지도 되더군요. 그리고 역시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도 깊은 것 같더군요.

- 서브노트 제작(8월에 완성)
- 서술형 대비이므로 키워드 중심의 문장 기술
- 범위 : 미술교육, 동양 미술사, 조선 시대 회화사, 서양미술사 신고전주의부터 현대 미술까지, 디자인사, 현대 디자인
- 암기를 해야 하므로 긴 문장 지양하고, 짧고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작함. 되도록 기본서의 문장을 그대로 쓰도록 노력함.

서브노트는 서술형을 위한 암기노트라고 생각하고 주요 이론의 개념과 특징, 종류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장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간결화하고, 암기 위주의 노트라고 생각하여 이 내용만은 꼭 암기하고, 알아가야 하는 내용으로 핵심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두께는 손가락 한마디만 큼 두께로 완성되었습니다. 글씨는 서술형 답안지 글씨 크기로 썼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제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기본서를 더욱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애매하게 아는 부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서브노트를 완성하는 것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가 된다는 점입니다. 만들어 가면서 암기를 병행합니다. 직접 적으면서 했기 때문에 집중도 잘되고, 머릿속에서 내용이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 서브노트 형식만 참고하시라고 간략히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9-11월 : 전공 5일 + 교육학 1일

[위상 모의고사, 플러스 특강(직강), 영역별 기출문제풀이(인강) + 교육학 모의고사(직강) ]

교육학에 대한 공부 방법을 짧막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제 중심으로 각각 이론들 나열하고, 각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였습니다. 복습 중심으로 했고, 월요일이 학원 수업이었으므로 일요일날 복습과 예습을 했고, 월요일 수업 후에 그날 배운 내용을 마인드맵을 그린 후 암기식으로 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수업 후 복습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늦어집니다. 8시 이전에 꼭 마무리 짓도록 제 스스로를 다그쳤고, 8-10시에는 전공을 훑어보면서 전공 내용에 대해 친숙함을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이틀 연이어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화요일에 전공공부를 시작하면 전공 내용이 생소한 느낌이 들더군요. 월요일 2시간이라도 전공을 훑어본다면 다음날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지고, 공부하는 기분도 좋아집니다. 교육학은 학원에 7-8월부터 다니면서 매주 1문제씩 시험봤습니다. 시험본 후 답안지 참고하여 제가 철삭하고, 중요 이론은 다시 암기하고, 그 부분만 다시 써보았습니다. 논술을 쓸 때는 어떤 이론이라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논술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을 갖추려면 짧게라도 쉬운 문장으로 써보고, 채점하고, 예시답안 확인한 후 이론 점검을 반복하면 됩니다. 2014 임용시험의 교육학 점수는 대다수가 좋았듯이 저 역시 18점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학 이론에 대한 내용이 가물가물하고, 시험을 볼 때 안다고 생각한 이론도 글로 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학을 미리 조금씩이라도 할 걸 그랬다며 후회했습니다.

시험을 보기 이전과 이후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의 복습과 예습이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7월부터는 학원에서 매주 시험 보는 체제로 돌입하죠. 꼭 직강을 들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계속 자신을 테스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대비 암기 →	학원에서 시험 →	시험 내용 복습
마인드맵 정리 후 암기(복습, 예습)	교육학 시험	시험 본 내용과 그날 수업 내용 암기
전 범위 학습 (서브노트암기→심화자료→기본서)	전공 시험	·시험에 제시된 중요한 문장 암기, 필기내용 암기, 답안지 첨삭한 후 문장 암기 ·시험 본 내용과 관련 이론 찾아보기, 포스트일에 간략히 요약 후 시험지에 부착.

### 전공의 경우

9-10월 모의고사에 맞추어 월, 화, 수, 목, 금요일 전 범위 암기를 하기 위해 서브노트로 암기하고, 심화자료(3,4월 수업자료) 읽기, 교과서 도판 자료 보기를 반복합니다. 서브노트 암기 후에 심화자료를 읽으면 훨씬 집중이 되고, 공금증도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기본서를 다시 펼쳐봅니다. 이러한 공부 후에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치루고, 토요일날 복습을 합니다. 모고 문제와 제시된 답안지, 필기 내용을 암기합니다. 모고 역시 복습은 3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복습할 때 항상 기본서 내용과 기출을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서와 기출을 함께 분석하면 문제 출제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저는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을 2번씩 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압축되고, 내용을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8회 모두 항상 59점-60점이었습니다.(등수는 대부분 6등정도하였습니다.) **모의고사 2회 무렵 장지연 선생님께 개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곧 시험인데 앞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렵 장지연쌤과 위상쌤께 많은 의지를 하였고, 장지연쌤과 위상쌤 덕분에 집중하여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큼니다. 앞으로도 이 시기의 경험과 제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저도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고를 준비해보니 기입형을 항상 2-3개씩 틀리더라구요. 여지껏 서술형을 대비하여 이론을 학습해왔는데, 기입형을 다시 철저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모지에 관련 도판과 핵심 키워드를 삽입하여 이론 들을 조각조각 만들었습니다. 문제에서 틀린 것 위주, 문제를 맞았어도 중요한 내용, 교과서 내용, 스터디 자료 중 중요한 내용을 모아서 키워드 위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입형 대비 서브노트도 뒤늦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입형 서브노트는 제가 잘 틀리는 사항을 위주로 하다보니 오답노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답노트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오답노트를 잘 못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려고하면 집중도 잘 안되고, 뭔가 번거로운 일만 되는 것 같아서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린 기입형 문제 위주로 서브노트를 만들다보니 키워드 중심으로 제작하게 되고, 키워드에 해당되는 도판도 함께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답노트가 된 셈이 되어 틀린 문제가 또 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7, 8회 모의고사는 기입형을 다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기입형을 2개 틀렸습니다. 이 2문제 모두 제가 아는 내용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실력이겠지요? 실력을 쌓는 건 참으로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 맞는 건가 봅니다. \*기입형 서브노트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습하고, 기출분석하고, 모고 대비하고, 교육학 준비하면 일주일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리고 모고 8주는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 마지막 11월은 전공 +5점을 목표로 하여

전 범위를 서브노트 암기하고, 기본서 보고, 단원별이나 모고에서의 서술형 문제를 계속 써보고, 채점+첨삭+암기를 하였습니다. 플러스특강 전에도 그 범위를 미리 예습하여 수업시간에는 저의 암기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참여했습니다.

이 시기의 **교육학**은 한문제당 6-7줄 정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5문제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씩 분석하고, 형식에 맞게 이론을 적절한 분량으로 쓰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78월부터 모아둔 문제와 기출문제(빨간색 책)에서 중요한 이론, 제가 어려워하는 이론을 계속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암기가 중요합니다.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각 항목들을 완벽하게 써낼 수 있도록 암기하였습니다. 이는 이 기간에만 암기하시면 안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부터 암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2015임용-서술형 문제에서 평가 계획 두 항목 쓰라는 문제와 서예 수업에서 학습목표 제시할 때 성취기준을 근거로 쓰라는 문제를 읽는 순간 머릿 속에서 교육과정 문장이 자동적으로 떠올랐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도판을 해석할 때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서술할 때의 글이 더욱 논리적이고 교육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교육과정 암기를 하였습니다.

**11월**, 이 시기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져 마인드컨트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볼 때 아는 것만 제대로 쓰자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시험에 대한 마음의 준비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정말 잘 버티세요. 다들 힘들고, 저도 겪어왔고, 모두들 겪어왔습니다. 정말 자신을 보호하시고, 잘 다독이세요.

제가 첨부하는 파일은 형식을 참고하라는 것이지 이대로만 하면 학습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가 아닙니다. 제가 쓴 이 글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서브노트는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브노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학습 방법입니다.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기본은 암기와 반복입니다. 암기는 주로 백지쓰기를 하였습니다. 백지쓰기를 하더라도 한번에 A4용지에 빼곡이 쓰는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암기하였고, 암기 양은 점차로 늘려갔습니다. 암기도 습관과 학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에서 7, 8월 달이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7, 8월 달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고, 7, 8월 이전에 이론적인 내용이 다져져야 7, 8월에 꼼꼼하게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9, 10월 모의고사에서 실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1월까지 모두 하루하루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남은 날짜 하루하루 충실하게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은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 첨부**

스터디 문제, 서브노트(서술형 대비, 기입형 대비)

스터디 문제 예시)

문1	다음 (가) 와 같은 작품 경향의 등장 배경을 쓰고, (나) 유파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기입형)	
	(가) 	(나) 
<p>- (가) 작품은</p> <p>- (가)의 등장배경:</p> <p>- (나) 유파와 공통점:</p> <p style="padding-left: 40px;">차이점: ①</p> <p style="padding-left: 80px;">②</p>		

서브노트 예시)

서술형 대비

**서술형**

- 많은 키워드들이 포함된 의미적, >적적 관을 요구하며.
- 음용물과 이차적 보충, 필요 동사의 적적, 동사 다의성, 3인 1의 적적, 의미적 확장, 인과적, 뉘앙스의 의미적 적적 등.

**1. 글의 주제와 수적적 의미 비교**

A. <b>주제적</b>	B. <b>수적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li> <li>화제나 중요 인물 등이 중심 역할과 식의 변화가 지루함.</li> <li>다양한 색상과 환상적인 분위기 등을 표현할 수 있다.</li> <li>복사나 수정, 재작성이 쉽고, 여러 '장'에서 볼 수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li> <li>3차원적 가상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li> <li>동화적 느낌과 상상의 날카로운 작품 느낌.</li> <li>다양한 크기에 적합한 작품이 가능하며, 즉각적인 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li> <li>관심을 갖는다. (인물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li> <li>동화적 느낌의 안전을 넘어서는 작품들을 기대하기 어렵다.</li> <li>저렴 작품의 실재적 크기나 실재성에 기반한 즉각적 느낌을 표현하기 어렵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li> <li>수직과 비수직의 적적 적적의 길고 환상적임을 사기.</li> <li>정교한 색상과 화려한 몇 차례의 필력이 어렵다.</li> <li>비밀과 존, 작위성이 어렵다.</li> </ul>

**C. 가상현실** -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꾸민 컴퓨터 그래픽 속에 들어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험을 이용하여 그 속에서 정의된 세계를 경험하고, 현실세계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

**주요적**

- 가상: 수직적 경험.
- 가상: 감각이나 비수직적 감각 가능.
- 가상: 상호작용 가능. 물체를 만들 수 있고, 특징을 바꿀 수 있는 것.

**다. 멀티미디어 저작기 :**

- 주요적** 분야: 그래픽, 사운드, 애니메이션, 비디오.
- 주요적** 용어: 동기화, 일방적성, 상호작용성, <동작이 있는 스토리>,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 주요적** 용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 주요적** 용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 주요적** 용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기입형 대비

**서술형** (복사나 수정, 재작성이 쉽고, 여러 '장'에서 볼 수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1) 가장: 인과적 양적

2) 서술형 양적의 특징

- 가장: 영아, 정교한 필체.
- 가장: 부드럽고, 단려적인 필체. 시각적 안정감.



색면 표현 → 파사주  
두꺼운 붓질 방채로 색면만드는 기법.



공간 표현 → 르네상스 기법, 균형감.  
트리밍 기법, 주요 부분 중심으로 이동시켜 확대.

\* 트립 픽처

생활에 쓰임 많은 물건을 입의 반질대며 붙이는 것.